

“대~한민국” 광주·전남이 들썩

월드컵경기장·가정·호프집·식당 등 한국 승리에 열광의 도가니

‘태극 전사’들이 2010 남아공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데는 4800만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가 한 몫을 했다. 특히 한국 축구가 월드컵 원정 사상 두 번째 승리를 거두자 광주·전남은 온통 축구 열기로 가득했다.

한국과 그리스의 남아공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지난 12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 ‘이역만리’ 남아공에서의 한 판 대결을 앞둔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지역 응원단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붉은악마 차림을 한 응원단들이 4만245석의 좌석을 하나 둘씩 메우더니, 어느새 경기장이 온통 ‘붉은 물결’로 일렁였다. 가로 15m, 세로 10m 크기의 대형 전광판에 태극전사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시민들은 일제히 “대~한민국”을 외쳤고, “오~ 월드컵 코리아”를 목놓아 불렀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응원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한국 선수들의 슛이 아쉽게 골대 밖으로 벗어날 때 마다 곳곳에서 탄성이 쏟아졌지만 이내 한 마음이 돼 응원에 몰두했다.

경기장에 모인 ‘붉은악마’는 실수를 한 선수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모두 일어서서 몸을 비비며 열광적인 응원에 몰입했다.

“압박을 해야지!”, “아휴 저~” 경기가 잘 안 풀리자 다소 응원전이 의기소침해졌다. 그러나 전반 7분, 기성용이 골문 바로 앞쪽으로 낮게 띄워 올린 공을 이정수가 골로 연결하자 월드컵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응원단들은 이 때까지 줄어든 가슴을 활짝 열고 ‘아리랑’을 목이 터져라 불러 지었다. 후반 시작 전, 강은태 광



금호고 축구부 “기성용 최고”

가 첫 골로 연결시키자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금호고등학교 축구부원 20여명이 지난 1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합동응원 도중 학교 선배인 기성용 선수의 프리킥을 이정수 선수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시장 당선자가 400m 트랙 한 바퀴를 돌며 관중석을 향해 축구공 10개를 던지자 시민들은 일제히 “우~와”를 외치며 환호했다.

후반 들어 박지성이 승부에 쐬기를 박는 두 번째 골을 터뜨리는데 이어 40여분 뒤에는 한국의 2-0 승리를 알리는 종료 휘슬이 울리자 월드컵경기장은 온통 축제분위기가 됐다.

같은 시간 광주·전남의 각 가정과 호프집, 식당 등에서 경기를 지켜본 시민들도 서로 얼싸안으며 승리의 감격에 빠져들었다.

북구 용봉동 B호프집에도 100명이 손님이 우리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전개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또 도심 도로 곳곳에서는 차량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축하 경적을 울려 태극전사의 승리를 자축했다.

이상민(25·북구 용봉동)씨는 “내 생애에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다”면서 “우리 팀이 16강이 아니라 8강에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흥분을 가리얏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팀의 경기를 지켜본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 기영옥(54·대한축구협회 이사)씨는 “성용이의 어시스트가 한국의 첫 골로 연결돼 날아갈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기씨는 전반 7분께 아들이 그

리스 진영 오른쪽 코너에서 찬 프리킥이 골대 앞으로 뛰어들던 이정수 선수의 오른발을 맞고 첫 골로 연결되자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했다.

기씨는 후반 6분에도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자 곁에 있던 광주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얼싸안으며 한국의 승리를 자축했다.

기씨는 경기 종료 후 “성용이가 찬 프리킥이 첫 골로 연결돼 기쁘다. 두 번째 경기인 아르헨티나전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씨는 오는 15일 남아공으로 출국해 17일 아르헨티나전이 열리는 ‘사커시터’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지켜볼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월출산 도갑 습지 등 18곳 특별보호구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흑산도 배낭기미 습지 등 13개 국립공원 18곳 7.7km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 관찰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출입금지 조항을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특별보호구는 배낭기미 습지 외에 내장산 입암산성 습지, 월출산 도갑 습지, 다도해 부항리 습지, 계룡산 이가도룡봉 서식지, 경주 독중개 서식지, 오대산 산양 서식지 등이다.

멸종위기 식물 군락지 중에서는 덕유산(광릉요강꽃), 지리산과 주왕산(가시오갈피), 오대산(산작약), 월악산(왕제비꽃), 변산반도(미선나무) 등의 일부가 지정됐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소나기 피하기

하루종일 구름 많고, 늦은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한대비	19/29℃
목포	흐림	19/26℃
여수	흐림	19/25℃
완도	흐림	18/27℃
구례	흐리고한대비	18/30℃
애남	흐림	19/27℃
장흥	흐림	18/27℃
고흥	흐림	18/28℃
순천	흐림	19/28℃
영광	흐리고한대비	19/27℃
진도	흐림	18/27℃
전주	흐리고한대비	19/30℃
남원	흐리고한대비	18/29℃
목성	흐림	16/21℃

지역	종량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	🍷	👤

서강고 등 광주·전남 5곳 이동식 수업

교과부 추가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이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인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60곳을 추가로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광주는 서강고와 송일고 등 2곳, 전남은 여수 여도중과 순천강남여고 목포 영흥고 등 3곳이 포함됐다.

올해 교과교실제 공모에는 128개교가 응모했고, 시·도 교육청 심사와 한국교육개발원 의견을 반영해 총 23곳, 고등학교 37곳이 선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년제 중·고 통합 대안학교

광주 지혜학교 신입생 모집

6년제 중·고교 통합형 대안학교인 광주 지혜학교가 오는 7월 1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난 3월 문을 연 지혜학교는 철학 교육 중심의 중·고교 통합과정 대안 학교로 현재 중·고 과정 각 40명과 25명이 입학해 생활하고 있다.

7월1일부터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수학능력, 사회성 평가, 심층면접, 2박3일 전형캠프 등을 거쳐 7월2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크시리 농도

엘도리노리조트

시니어스 개강기간: 5월 31일부터 (최신형 콘서트)

15,000원 / 15,000원

104,000원 / 153,000원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망수시스템

단열 망수 시스템

511-0444, 010-6603-0405

이태리 좌탁, 식탁 특별전 50% ▶

이태리 좌탁, 식탁 특별전 50% ▶

이태리 좌탁, 식탁 특별전 50% ▶